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광명의 빛, 자비의 빛이 온누리에

신뇨엔(眞如苑)
교무장 니시가와 세지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전쟁과,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뇨엔은 매일 전쟁 종식과 코로나극복기념, 희생자회향을 비롯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 저는 '南無眞如'라는 진언을 외울 것을 권유해봅니다. '眞如' 란 지혜와 자비, 삼보의 공덕을 담은 구제의 힘이자, 귀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깃드는 광명의 빛입니다. 열반경에 광명의 빛은 팔만사천 모공으로 들어가 구제된다 하시듯이,부처님오신 날' 이 자비의 빛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모든 대중에게 위로와 희복, 희망과 행복 그리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 태어나는 해방의 날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불기 2566년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너와 나를 가르는 것은 대립과 분쟁을 부르게 됩니다.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탐심과 무지가 질병과 재난을 만듭니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고, 너와 내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은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실천이 따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자연과 더불어 하나로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어 환희와 축복의 세계를 열어나간다면 부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희망의 등, 코로나와 전쟁 종식을 염원하는 화엄의 등, 세상의 미래를 밝혀주는 광명의 등을 밝혀 진심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다함께 찬탄합시다.

나와 다름이 아님 부처님 큰 뜻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모든 불제자 여러분과 함께 2566년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악과 귀천의 모든 모습은 껍때기일 뿐 그 참모습들은 거룩한 부처님과 같아서 일체가 거룩하며 숭고합니다. 이는 나와 다름이 아니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아픈 이웃을 돌아보며 부처님 오심의 큰 뜻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하늘 땅 가운데 내가 유일하네"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각몽 혜승



生時靈瑞事 不可具言設
생시연서사 불가구언설
天雨花散地 龍噴水浴身
천우화산지 용분수욕신
生已蓮承足 四方各七步
생이연승족 사방각칠보
兩手指天地 卽作獅子吼
양수지천지 즉작사자후

태어나실 때 신령 상서로운 일은 말로 갖추어 말할 수 없으니
하늘에서 비 오듯 꽃을 땅에 뿌리고 용은 물을 뿜어 몸을 씻겼네
태어나시자 연꽃이 발을 받들어 사방으로 각각 일곱 발짝을 걷고
두 손으로 하늘 땅을 가리키며 곧 사자의 목청으로 외치시었네.

우리 모두 자비로운 마음으로

(재)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란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대자비의 가르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들의 세상에 가득 비쳐 일체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진리 추구하며 잘 삽시다.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이기와 독선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오직 '나' 만의 이익을 탐하고 안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견과 아상은 다른 이를 미워하며, 해치고자 하는 무서운 몰이해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느냐 아니면 파경으로 이끄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불자로서 참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佛性은 마음에 있다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佛性은 마음에 있다. 행행본처(行行本處) 요 지지발처(至至發處)라 왔다갔다. 하지만 본래 그 자리요 왔다 갔다. 하지만 떠났던 그 자릴세. 진리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리의 현현(顯現)입니다. 진리는 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53 선지식로 찾아 선재동자, 그러나 진리의 보살이 화현한 곳은 그가 출발한 바로 그 자리 였습니다.

일체유심(一切唯心)이며, 만법유심(萬法唯心)

대한불교 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임인년 부처님오신날 우주법신불 위신력으로 국내국제 각나라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드리오니 지구촌 세상 사람들이여 !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십시요, 일체유심(一切唯心)이며, 만법유심(萬法唯心)입니다. 마음밖에 무슨법이 또 있겠습니까 ? 이 심령이 본래의 자리를 한 물건이라 합니다. 소소영영해서 모양을 그릴수도 없고, 이름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알면 그대가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 평화위해 마음속 전쟁심을 모두다 버리시고, 다음 생 기다리지 마시고 ! 금생에 꼭 성불하십시오.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세상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거룩하신 부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찬사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연을 아끼며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무사히 안착되어 곳곳에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 날을 맞으며 일상의 행복을 위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열어갑시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불기2566년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오신 날을 감축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이유는 중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소 수행을 통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묵묵한 마음과 꿋꿋한 정신으로 그간 어려움 모두 잘 이겨내신 불자님들께 찬탄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시 자비 마음이면 처처가 연꽃 세상입니다. 행복은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입니다. 본심의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불국토를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등불로 밝은 세상 낙원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부처님의 지혜로운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향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자유와 행복, 모든 중생의 미혹과 무명을 환하게 밝히시고자 이 땅에 나투셨습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와 세계는 결국 나 자신과 연결돼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지혜와 자비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매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 모든 이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불국정토 이룩하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성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불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법 홍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중생에게 무명을 밝히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로 많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들고 고통 받는 중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6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